

돌아온 아들

-열한 번째 이야기-



68Page

나 레 이 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.
아버지는 두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.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요. 하지만 작은 아들은 노는 것만 좋아하는 말쑥꾸러기였어요. 그러던 어느 날,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집을 떠나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.

작 은 아 들 아버지,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재산을 미리 주세요! 전 집을 나가서 살고 싶어요!

아 버 지 아니, 뭐라고? 아들이, 세상은 살기가 어려운 곳이란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렴

작 은 아 들 아버지~저도 이제 어른이에요! 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!

나 레 이 셴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 보낼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, 작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주어 떠나 보냈어요.



69Page

나 레 이 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났어요. 크고 화려한 도시에 도착한 작은 아들은 매일 매일 먹고 싶은 것, 하고 싶은 것, 사고 싶은 것을 사며 마음대로 살았어요.

작 은 아 들 내 마음대로 사니까 진짜 좋다 진짜 집을 나올걸 그랬어!!

나 레 이 셴 작은 아들은 매일 밤마다 새로 사건 친구들을 불러 맛있는 음식과 비싼 포도주를 마셨어요. 그리고 왕자처럼 비싼 옷과 보석들을 잔뜩 사며 돈을 마구 썼어요.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아온 전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말았어요.



70Pag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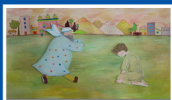
나 레 이 셴 돈이 떨어지자 작은아들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모두 떠나고 작은 아들은 빈털터리에게 외톨이가 되었어요. 배고픔을 참다 못한 작은 아들은 어느 집의 일꾼으로 들어갔어요.
주인이 작은아들에게 말했어요.

주 인 이봐, 빨리빨리 움직여야지!! 돼지우리도 깨끗하게 청소하고!! 돼지 밥도 부지런히 줘!

작 은 아 들 아~ 너무 배고파... 돼지들이 먹는 거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. 흑흑.....

나 레 이 셴 작은아들은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. 그래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.
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어졌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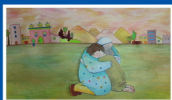
작 은 아 들 아버지는 날 항상 사랑해 주셨는데,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하인들도
다 잘 먹고 사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! 안 되겠다. 아버지께
돌아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나를 하인들 중에 하나로 여겨
달라고 부탁 드려야겠어....



71Page

나 레 이 셴 작은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.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이 점점
다가오자 작은 아들은 걱정되고 불안했어요.

작 은 아 들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? 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모두
쓰고, 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. 아버지가 용서 해주시지 않을 지도
몰라. 그럼 난 어떡하지? 흑흑.....



72Page

나 레 이 셴 작은아들은 울면서 고향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. 그런데 저 멀리 고향집
대문 앞에서 아버지가 보였어요. 아버지는 작은아들이 돌아올 때까지
매일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. 멀리서 거지 모습을 한 작은아들이
오고 있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달려가 꼭 안아 주었어요.

작 은 아 들 아버지! 전 큰 죄를 지었어요.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
하인이라고 불러주세요.

아 버 지 애야, 무슨 소리니, 나는 매일매일 너를 기다렸다. 네가 재산을 가지고
집을 나갈 때도 널 사랑했고,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.
너는 내 아들이야!



73Page

나 레 이 셴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.

아 버 지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귀한 신발을
신겨라!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!

나 레 이 셴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였어요.
작은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달았답니다.